화살
동원사
12호
1963
DEC 2 1968
COLUMBIA UNIVERSITY
KOREAN COL
《구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자립경제
연료 동력
원료 자재
기계 설비
성명.....남조선 경제
병명.....전면적 파탄
원인.....외세 의존
남조선 경제
안 창수 그림

출전 준비 완료!

1963—자,이 대렬을 인계 받으라구!

송 시엽 그림

폐막사이자 곧 개막사

최 경희

여러 분! 이상으로써 승리의 해 1963년을 보내면서 종합 예술 공연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다구요? 물어 보세요. 첫째 이처럼 훌륭한 내용을 담은 음악, 무용 프로를 무대에 올려 놓게 된 비결은 어데 있는가 그말씀이지요. 네, 그야 뭐 대답은 간단하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기치밑에 당이 제시한 10 대과업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초과 완수되고 작년에 비하여 108% 이상의 장성을 예견하게 되였으며 례년에 드문 자연 재해를 이겨 내여 고금에 없는 대풍을 거두게 된 바로 거기에 있답니다. 그럼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여러 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무대에 올려 놓은 무용극 《천리마를 타고》를 보셨지요? 무대가 떠나갈듯 울려퍼지는 《만세!》 소리와 함께 붉은기 나붓기는 이 격동적인 장면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겠어요. 네, 옳아요! 그것은 금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악하게 달라붙어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면서 끝내 자체의 힘으로 웅장한 75 톤급 기중기와 75 마력 뜨락또르, 4립방 메터 엑스까와또르를 비롯한 대형 및 특수 기계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성과를 노래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계 청년 발전소, 강선 제강소 인발 강관 직장, 황해 제철의 분괴 압연 직장과 화학직장,질안 석회 비료 공장 등 새로 지은 공장 기업소는 또 얼마나 많구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섬세한 무용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애요.

이윽고 무대는 전환해서 음악 무용 《지상 락원 좋을시고》가 상연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신바와 같이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린 과실 나무들에는 얼마나 탐스러운 일용 필수품의 열매가 주렁졌어요. 이 음악 무용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우리 세상, 우리 살림을 더욱 풍만하게 한 찬란한 성과를 형상화한 것이지요! 더우기 당과 인민 간의 철통 같은 단결,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우리 인민의 충천하는 기세, 도시와 농촌마다 차고 넘치는 행복의 노래 소리—이 감격, 이 영예를 담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거듭 재창, 삼창을 받은 남녀 중창 《오, 어머니 조국이여! 감사합니다》였구요. 네!? 그러구 보니 위대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가한 시극 《은이 나고 룡이 난다》는 바로 금년도의 이 찬란한 성과가 어떻게 돼서 이룩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이 아니였냐구요? 암 그렇지요, 맞았어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공연의 폐막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폐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구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폐막사가 아니라 개막사로 되여야겠다구요? 옳아요!

그럼 여러 분,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대고조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기적적인 성과를 노래한 종합 예술 공연 《보다 더 큰 승리의 해 1964년》의 개막을 선포합니다.

만고 풍년

간밤까지 쌓아 올린 벼 낟가리가 말그대로 쌀산을 이룬 두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꽹과리며 새납 소리가 울리고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명절 옷차림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 가고 있었다.

분배'날의 경사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는 대단한 풍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자 서로 흐뭇한 얼굴로 한 마디씩 하였다.

—내 나이 올해 예순 일곱이지만 금년 같은 홍수도 처음 보고 금년 같은 대풍년도 처음 보오.

—난 80 평생 처음 보는걸.

—그런 말 마소. 나는 금년에 90 환갑을 맞지만 내 알기엔 올 농사가 150 년래 대풍년인 것 같소.

—150 년래 대풍년이라니요?

—내가 어릴적인데 그 때 농사가 70 년래 대풍이라구 온 동네가 떠든 해가 있었소. 그런데 그 해 농사가 금년 농사에 비하면 절반에 절반두 못 됐댔으니 150 년래 대풍이 아니겠소. 그후 80 년이 지났으니 말이요.

—에그, 여기에 천 년을 산 사람이 있어 보구려. 금년 같은 대풍년은 처음 본다구 하지 않나…

올해 90인 최 로인과 함께 나온 할머니가 한 마디 보태는 말이였다. 그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금년 같은 대풍년을 두고 만고 풍년이란 말이 생겼으리라!

로동당 시대,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만고 풍년!

문덕군 한 군에서만도 해방 전에 비하면 6배, 평남 관개가 건설된 후 최고 수확을 냈던 작년보다도 8,100 톤이나 더 많은 8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기적을 올렸으니 이 어찌 천리마 시대의 협동 농민들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농장원들은 이구 동성으로 말하기를 올해의 풍작은 당과 수상님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당은 물과 전기와 기계를 주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주고 일손이 딸리는 농사철마다 수 많은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금년에 문덕군에서 달성한 성과는 다른 모든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구현이며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우월성이 가져다 준 빛나는 결실인 것이다.

이 번에 문덕군에서는 모두가 일심 단합하여 금년 농사를 썩 잘 지음으로써 근위 1 급 군의 칭호를 수여 받았고 영예롭게도 수상 동지께서 친히 보내 주신 12 대의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자전거, 솜저고리, 고급 양복천, 비단 옷감들을 귀중한 선물로 받았다.

이런 기쁨을 안고 새로운 증산 성과로써 오늘의 영예를 보답하려는 굳은 결의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어리여 있는 가운데 분배가 시작되였다.

사람들은 벼'가마니를 가득 실은 자동차 운전대에 최 로인을 모시였다. 뒤따라 그의 가족이 차에 올랐다.

—이 차에 실은 게 우리 분배 몫이냐? 최 로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예, 저기 일곱 번째 차에 실은 것까지 우리 분배 몫입니다.

—그렇게 많으냐?

—14 톤이나 되니까 280 가마니랍니다.

—꿈만 같구나. 내 60 환갑 땐 원두막에서 새'하얀 눈을 한 사발 놓고 한숨으로 지냈는데 지금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지 또 이렇게 분배까지 많으니 이젠 부러운게 없구나, 부러운게 없어!

자동차가 움직이자 북소리며 징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퍼졌다.

천 무삼

패권 보유자

《심판》 —이 자식이 남조선에서는 련승 하더니 북조선에 와선 형편 없이 됐군…

전 의남 그림

심각해 지는 위기의 나날

로 철

—미국 대통령의 1963년 일지 중에서—

★ 2월 14일 (목요일)

베네주엘라에서 민족 해방군이 미국 석유 회사 송유관을 도처에서 파괴하고 있다는 급보, 시급히 결정적 대책을 취하라는 《석유 대왕》 노르손 록펠러 각하의 얼음'장 같은 독촉.

그래서 앞으로 송유관을 3개소 파괴 당하면 그 때마다 베네주엘라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라고 미국 대사에게 엄격히 지시했더니 민족 해방군이 요새 와서는 하루에 3～5 개소의 송유관을 습격 파괴하고 있는 형편이니 그 수 많은 대통령 모가지'감을 어데서 구하라는 말인가고 대사가 지르는 비명……

오, 나도 석유 냄새에 어린듯 머리가 어찔어찔해져서 더는 일기를 쓰지 못 하겠다.

★ 4월 30일 (화요일)

《뉴욕 타임스》 《아메리칸 텔레그라프》를 비롯한 뉴욕시의 9개 신문사 로동자들이 근 4 개월간이나 끌어 오던 파업이 끝나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그간 폐간되였던 《뉴욕 타임스》 지를 오래간만에 받아 보았더니 실업자가 500만 명, 반실업자가 260만 명, 빈곤 지대가 570여 개소 이상이라는 보도—게다가 래일은 《5·1절》이여서 이 숱한 사람들이 《직업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라는 기'발을 들고 백악관에 밀려 올 기세라니…오! 어째서 《뉴욕 타임스》 지는 공교롭게 그 무서운 《5·1절》 전야에 복간이 돼서 나를 이처럼 불안케 하노, 차라리 신문을 보지 말 것을…

★ 5월 19일 (일요일)

파업 선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버밍감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흑인들의 대폭동이 일어났다. 인차 국민 경비대 1개 사단, 소방대 2 개 대대, 최루탄과 사냥'개로 무장한 경찰 2 개 련대를 버밍감에 급파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지시했다. 혹자는 이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나 우리 미국에서는 《자유를 달라!》 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자유지만 그것을 진압하는 것도 자유거든, 인종 차별 반대도 자유요, 인종 차별도 자유요…호호……미국의 《자유》 만세!

★ 6월 31일 (수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 까지

최근 3일간 나는 일기를 쓸 경황이 없었다. 글쎄 금년 상반년에만 해도 남부 월남에서 292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3만 5천 115 명이 살

수정주의자의 견해

박 승희 그림

상 당하고 192 대의 비행기가 격추 격상, 2천 5백 개의 《전략촌》 이 파괴 당했다니 이러다가는 월남을 몽땅 집어 삼키자던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이 나를 목매는 《사형 선고 없는 전쟁》으로 변할 것 같으니 제 정신이 있겠느냐 말이다.

★ 8월 23일 (토요일)

방금 국가 안전 위원회에서 돌아 오는 길이다. 미 핵잠수함 기항과 에프— 105 디 형 비행기 착륙 반대, 《한일 회담》 분쇄, 오끼나와 도의 귀속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에 대처할 방책을 온 종일 토의했는데

—어째서 일본에서 미국의 지위가 이처럼 불안전한가.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안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만을 얻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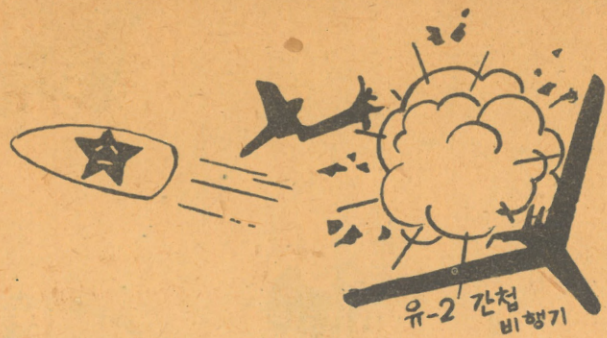
★ 9월 9일 (월요일)

《엉커크》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열세 번째 《년례 보고》 초안을 받았다. 대체로 잘 된 것 같다. 남조선에서 《민정 이양》 놀음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서 정연하고 정규적으로 진행되였다》 고 한 것이라든지 지구 우에 부풀어 오른 악성 암종이라고 세인이 말하는 남조선의 암흑상을 《민주주의를 위한 외'과 수술 과정》 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전대미문의 파산과 궁핍, 혼란과 악덕을 가리켜서 《국민 총 생산액이 약간 증가하고…공업 생산이 현저히 증가》 하였다고 한 대목이라든지 참 예술적으로 잘 표현되였다. 그런데 이 장편 환상 소설을 만드느라고 몇 달을 조이 고생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반나절 동안에 완성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남조선 대사 버거가 《엉커크》의 어중이떠중이들을 필사원으로 동원해 가지고 리 승만, 장면 시기의 《년례 보고》들 중에서 그럴듯한 부분만 베껴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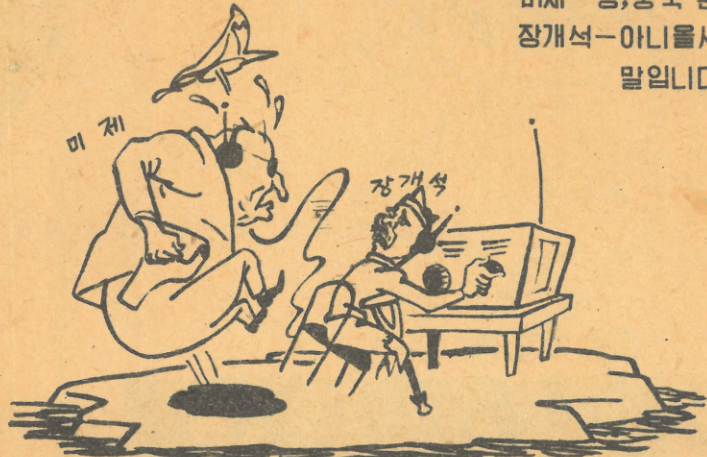
나는 미국을 위해 온갖 충성을 다 하고 있는 《엉커크》 에게 빵부스러기라도 던져 줄 것을 버거에게 지시했다.

★ 11월 11일 (월요일)

다각적 핵 무력 창설 문제, 공동 시장 문제, 강관 문제, 면직물 수출 문제, 어장 문제, 닭고기 문제…아무튼 우리 미국과 《맹국》인 영, 불, 서독, 일본 사이에는 금년 내내 아옹다옹 개판 싸움이 그쳐지는 날이 없더니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 하고 금년을 넘기게 되는 요즘에 와서 닭알 전쟁이란 고리따분한 싸움이 벌어졌으니 세상에 서로 맞쪼고 깨지지 않은 닭알 보지 못했다고 한쪽 《자유 세계》의 《단결》이 내 살아 생전에 산산 조각이 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유-2 간첩 비행기

장개석—엉망 진창 입니다.
미제—응,중국 본토가 말이지.
장개석—아니올시다. U—2 비행기가 말입니다.

미제

장개석

조 영식 그림

폭탄 《사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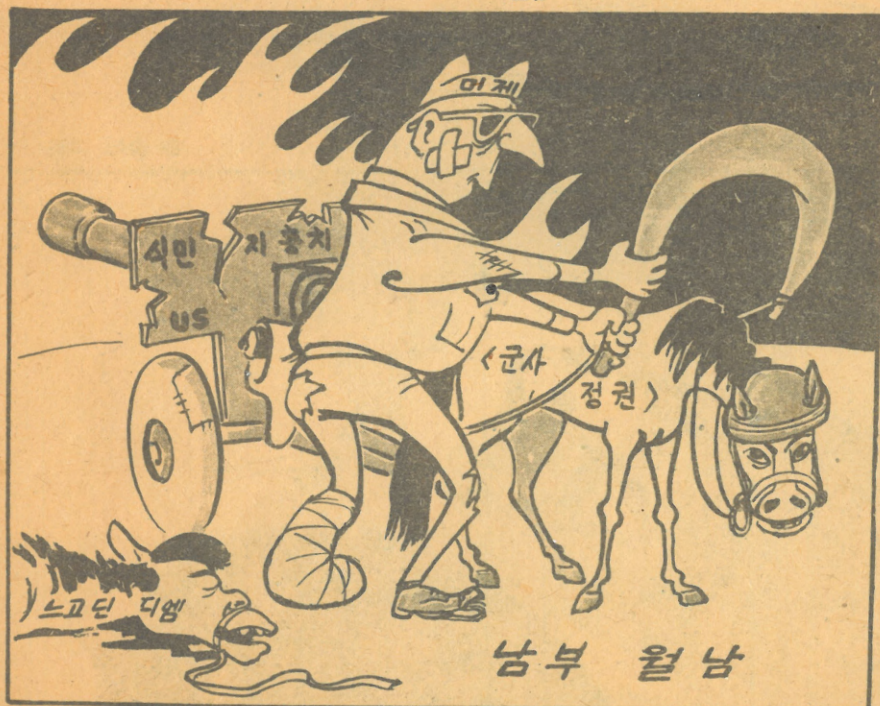
—많이 먹고 더 많이 새끼 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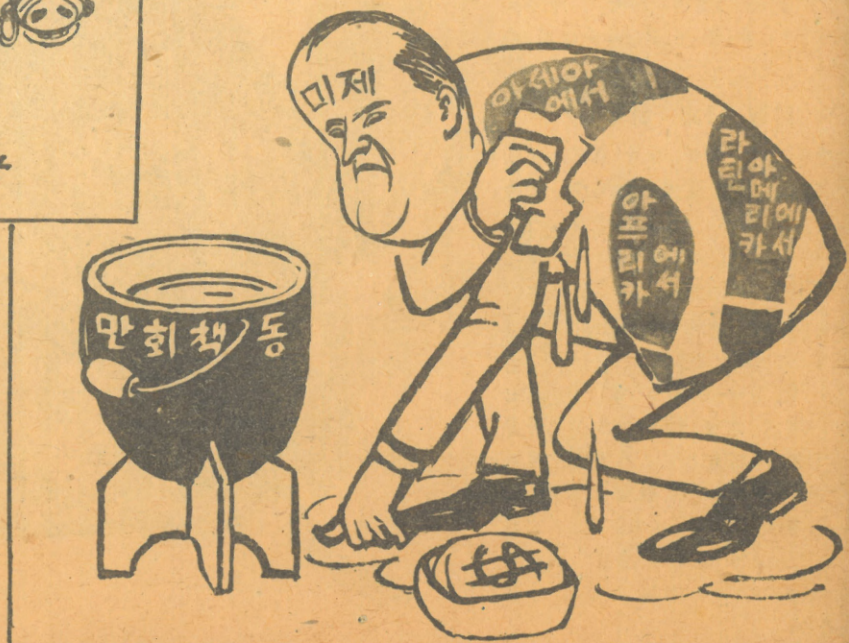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봉변 당한 날강도

—이놈 썩 물러가지 못 할가!

전 의남 그림

갈아 치웠다

원 광수 그림

세계 도처에서

박 승희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우쭐대던 미국이 오늘은 닭 고기나 게사니 고기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목에 걸려서 헐떡거리는 가련한 처지로 됐다.

시대는 벌써 어제가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게 변했는데 양키들은 그래도 체면과 탐욕만은 버릴 수 없어서 얼쿤 닭의 넋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가련하게도 발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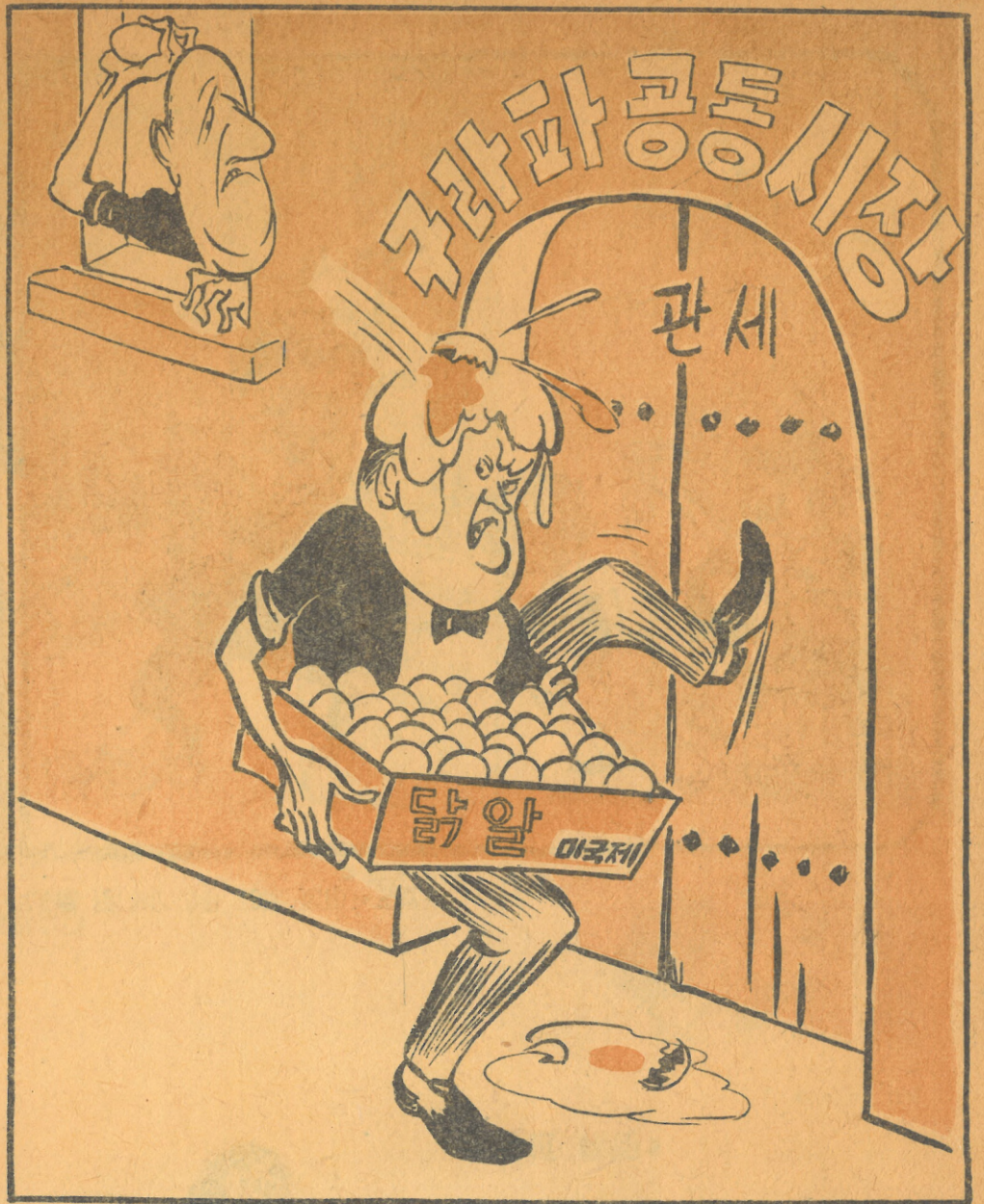
결과는 미국의 위신과 권위가 얼쿤 닭이나 오리 만큼도 보장하지 못한 셈으로 됐다.

닭고기 문제를 가트 회의에 넘기기로 하고 얼음판에서 소 탄 격으로 어물어물 미루어 버렸으나 이번에는 일본과의 《닭 고기 전쟁》이 시작됐을 뿐아니라 《닭알 전쟁》이 일기 시작했다. 《구라파 공동 시장》에서 미국산 닭알에 대한 관세를 또 올려서 양키들의 뺨을 다시 한 번 후려 갈겼다.

양키 닭이 모욕을 당한다고 붉으락 푸르락하던 양키들은 이 번에는 닭알이 모욕을 당하게 됐으니 미국의 위신은 닭의 수준으로부터 한 급 더 낮게 닭알 수준으로 굴러 떨어진 셈이다.

그러구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닭알은 매우 인연이 깊은가 보다. 케네디요, 닉슨이요, 아이젠하워요, 허터요 할 것 없이 하여튼 미국의 모모한 감투쟁이 치고 닭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구라파 행각에서도 썩은 닭알 세례를 받았고 라틴 아메리카나 아세아 려행에서도 썩은 닭알로 뒤'통수를 얻어 맞았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 것인가, 닭알 《풍년》이 든 미국이라 할가, 썩은 닭알로 맞은 미국이라 할가, 닭알 더미 우에 올라 앉아 발버둥 치는 가련한 자들이라 할가? 하여튼 양키들은 망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닭알 세례》

홍종호 그림

저승에서의 환영

최영근 그림

—케네디 혼자서 오나? 기다린 지 꽤 오래네…

앞잡이

찌또―이게 엄마 손이 아니란 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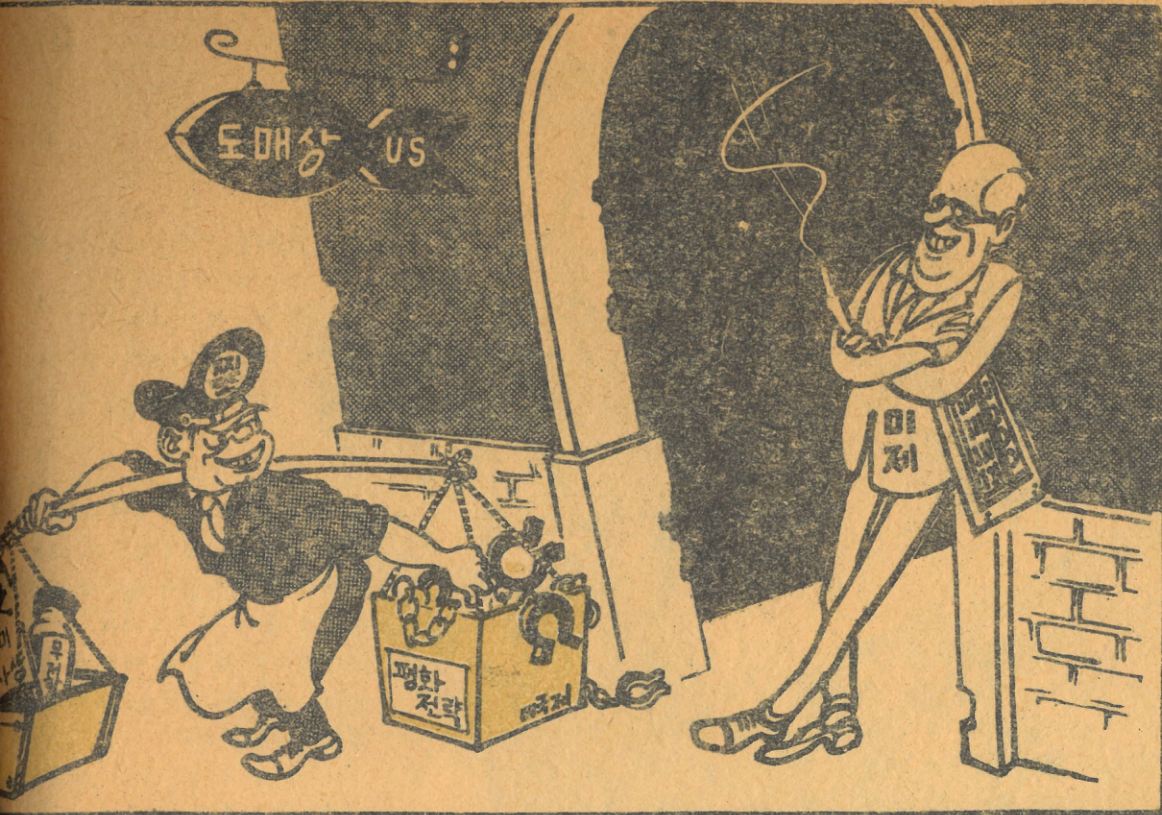
조 영식 그림

《례물 교환》

최 영근 그림

제국주의 렬강 간에는
둘러 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고기 전쟁》, 《닭알 전쟁》
니라 면직물 전쟁이라
하고, 강철 전쟁 이라
하고, 밀가루 전쟁도 하
단이나 인조 섬유 같은
지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하여
고 배 만지는 놈도 있고, 빰치
쳐다보는 놈도 있고, 가슴에
고 너털 웃음을 치는 놈도 있
을 안고 트위스트를 추는 놈도
천태 만상으로 벼라 별 지랄을
고 있다.

미제는 《다각적 핵 무력
란 간판을 내 걸고 서구라파를
의 동아'줄로 얽어 매려고 집
다가 불란서에 빰을 얻어 맞
영국은 미국의 앞잡이로 구라
시장에 기여 들려다가 퇴'자를
고, 불란서는 불란서 대로 서
파쑈 잔당들을 제편에 끌어서
파 령도권을 잡으려고 책동하
복수주의를 꿈꾸는 서부 독일
독일 대로 불란서와 짝짜꿍을
도 미국과 영국 쪽에 붙으
간을 부리고, 불란서의 빰을 얻
은 영국은 영국 대로 한 편으

장'돌뱅이

미제－어디다 퍼먹이려나
찌또－반미 감정이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최 영근 그림

찌또의 백악관 방문

백 인규 그림

승냥이들의 싸움

홍 순

등에 업으려 하면서도 또 다른 로는 딴 속을 채울려고 서둘고 튼 뚜꺼비 씨름은 어느 쪽이 이 지해 봐야 안다는 격으로 서로 고 간 내 먹는 험한 판이니까 두 노릇이다.

로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치고 것이 이른바 《자유 세계》의 《 국》 간의 관계요 《협조》 관계라 는 것인데 술상에 마주 앉았다 한 것도 아니요 네뿔 내뿔로서 치는 서방 뿔럭인지라 뿔이 부 때까지 싸워 볼만도 한 일이다.

이 추잡한 싸움판에서 잔뜩 독이 오르게 된 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두목 노릇을 한다는 양키들인데 그것은 휘둘러 온 지휘봉이 이제 더는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사처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체모가 형편 없이 깎이기 때문이다.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내 흔들다가 불란서 매부리코 한테 뒤'통수를 얻어 맞았고 《구라파 공동 시장》을 틀어 쥐려고 하다가 미끄러졌고 하다 못해 이제는 닭이나 오리의 구라파 진출까지도 관세 장벽에 걸려 들었으니 이모저모로 푸대접만 받은 판이라 미국의 《권위》 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미제는 얼마 전까지도 원자 공갈 정책으로 한 몫 보면서 제노라고 우쭐했는데 이제는 원자 공갈 따위 낡은 수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세상이 됐다.

물론 세상에는 원자 공포증에 걸려 말 소리도 크게 못내고 얼음 판을 탄 소처럼 어름어름하느라고 제 볼 일도 못 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의 추세는 원자 공갈로 한 몫 보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말았다.

양키들이 아무리 올러메고 아무리 독을 올려도 제국주의 내부의 모순은 더욱 커지고 촉진되고 심화될 뿐이다.

이에 가련한 것은 이 제국주의 내부 모순을 볼 줄 모르는 《색맹》 들이 있다는 사실—원래 색맹이라는 것은 길 보기는 멀쩡해도 색갈을 가려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색맹》 들 중에는 청색과 록색을 같은 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붉은 색과 누런색을 같은 색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도 있고 이 색갈 저 색갈을 뒤섞어 놓고는 제법 무지개를 그렸노라고 제김에 감탄하는 위인도 있고 하여튼 이쯤되면 청맹관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은즉 떠들지나 말고 잠자코 있으면 망신이라도 덜 하겠지만 그 주제에 제노라고 우쭐대는 사람도 있다.

그 우쭐대는 꼴은 승냥이가 너털웃음을 치는 것을 보고 양처럼 선량해 졌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어느 쪽이 제편인지 남의 편인지 또 누가 친구인지 원쑤인지 분간도 못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소리 저 소리 마구 주어 대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다.

제국주의 고유한 특성이고 그의 생리적 현상인 내부 모순을 보지 못하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양키 것이라면 덮어놓고 좋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아양을 떨기도 하고 승냥이와 악수하고 포옹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류의 사람은 자체 모순에 허덕이는 제국주의 내부 모순을 전혀 못 보는 가련한 자들이다.

또 하나의 기만극

류 진

남조선에서 상연된 《민정 이양》극은 퇴색한 무대 배경에 낡은 소도구들까지 리 승만, 장 면 시대의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고 나타난 배우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소리가 그 소리여서 인'기가 없어졌다.

다만 워싱톤의 관리들만이 초조와 불안 속에서 관람하다가 막이 내리자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민정 이양》극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선거》받았다는 《대통령》과 《국회》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조소와 랭대를 받은 《대통령》과 《국회》가 어째서 미제의 《축복》을 받았고 일제의 《환영》을 받았겠는가는 뻔한 일이다.

1 막에서 박 정희는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고 하는 소리가 《정국 안정》을 한다는 것이고 2막 독백에서는 《유엔에 의한 통일》, 《승공 통일》을 리 승만이가 하던 몸'짓 그대로 연기하며 고아댔다. 3막에 가서는 《미군의 장기 주둔》과 《미국의 원조》를 애걸하면서 일제 상전에게 추파를 던지는 연기를 아주 훌륭히 했다. 그래서 박 정희는 미일 상전들이 보낸 축하 꽃다발까지 받았다.

연극은 이러한데 이 기만극의 창조자들은 《민정 이양》극으로 생겨난 괴뢰 《정권》이 《공명 정대》한 《정부》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는 진출도 못 하게 살인 탄압을 하고 사소한 민족적 량심의 표현마저 압살한 여기에 과연 그 어떤 《공명》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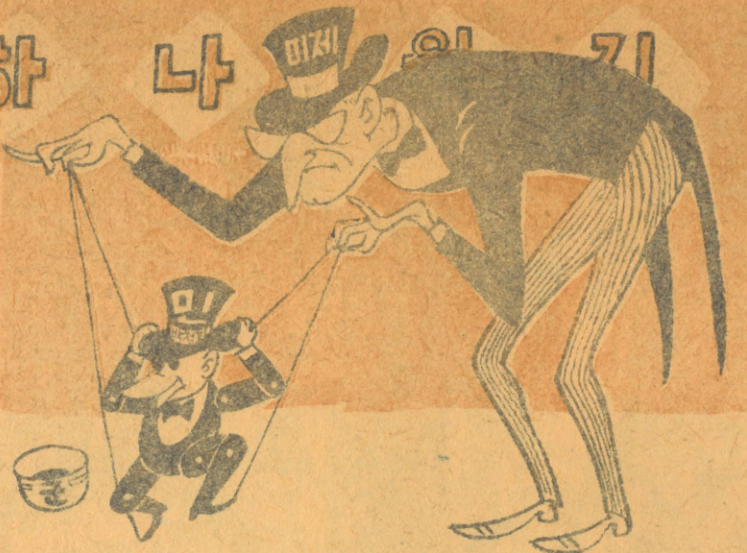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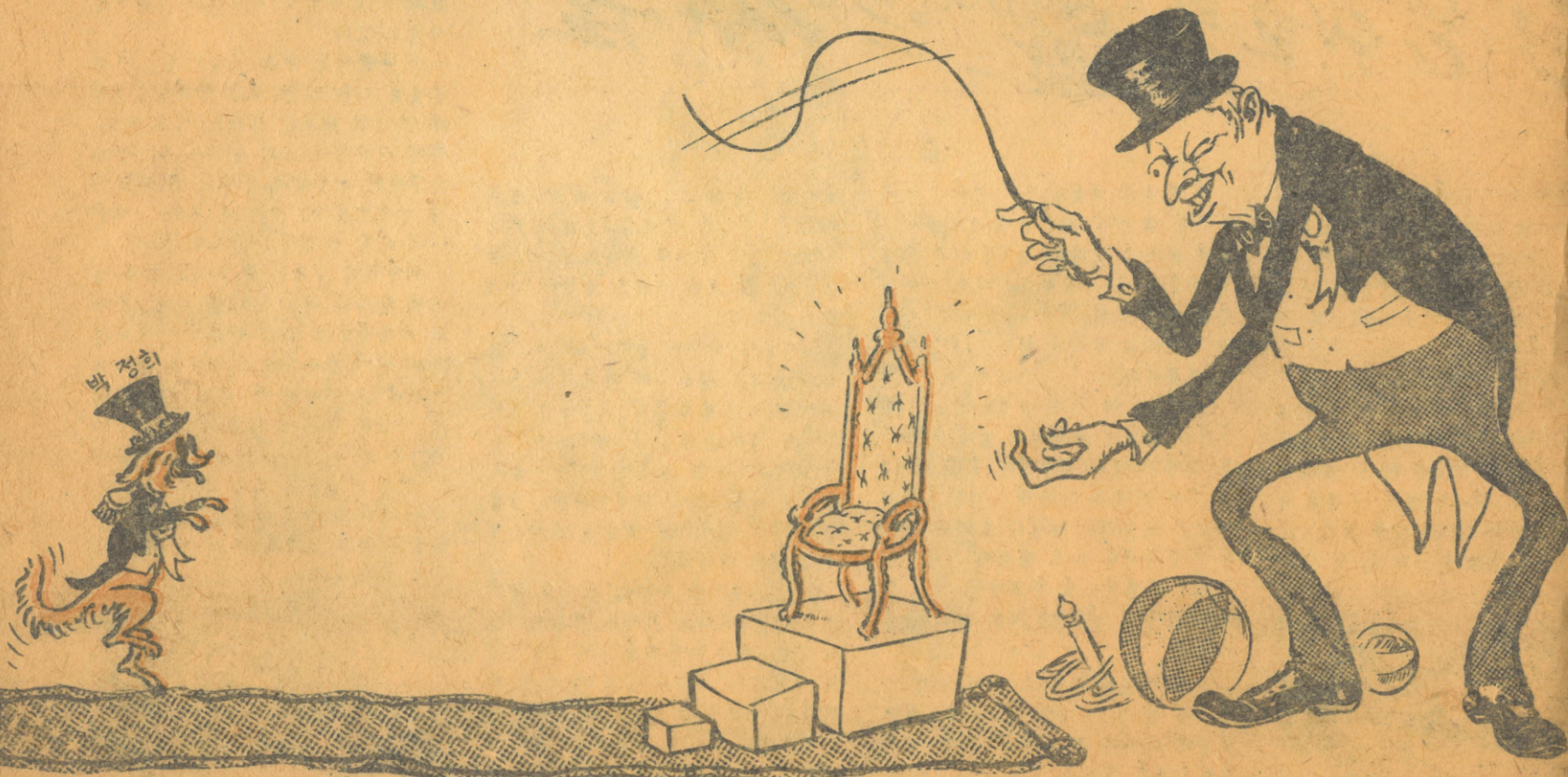
이 《민정 이양》 놀음은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한 연극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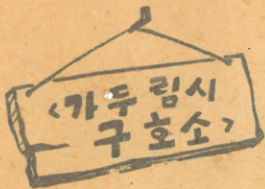
미제가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정권》의 간판이 아무리 바뀌여진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통치 기구로서의 괴뢰 《정권》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사태가 변할 수 있겠는가?

《민정 이양》극의 창조자들은 그 무대에 그 배우를 내 놓고도 무엇이 달라질듯이 떠들지만 결국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독백이 그 독백인지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군》자가 《민》자로 바뀐 것 뿐이다.

《대통령》 취임식

백 인균 그림

정치 활동 최고도에 달했다

—이년아 저 량반은 내가 섬길레다:…
—아니 어쩌구 어째 내가 섬길레야…

박 승희 그림

남조선 위정자들은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가두 림시 구호소》 라는 걸 만든다는 것이다.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을 구원할 테면 아주 영원한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이지 왜 《림시》 란 말을 붙이였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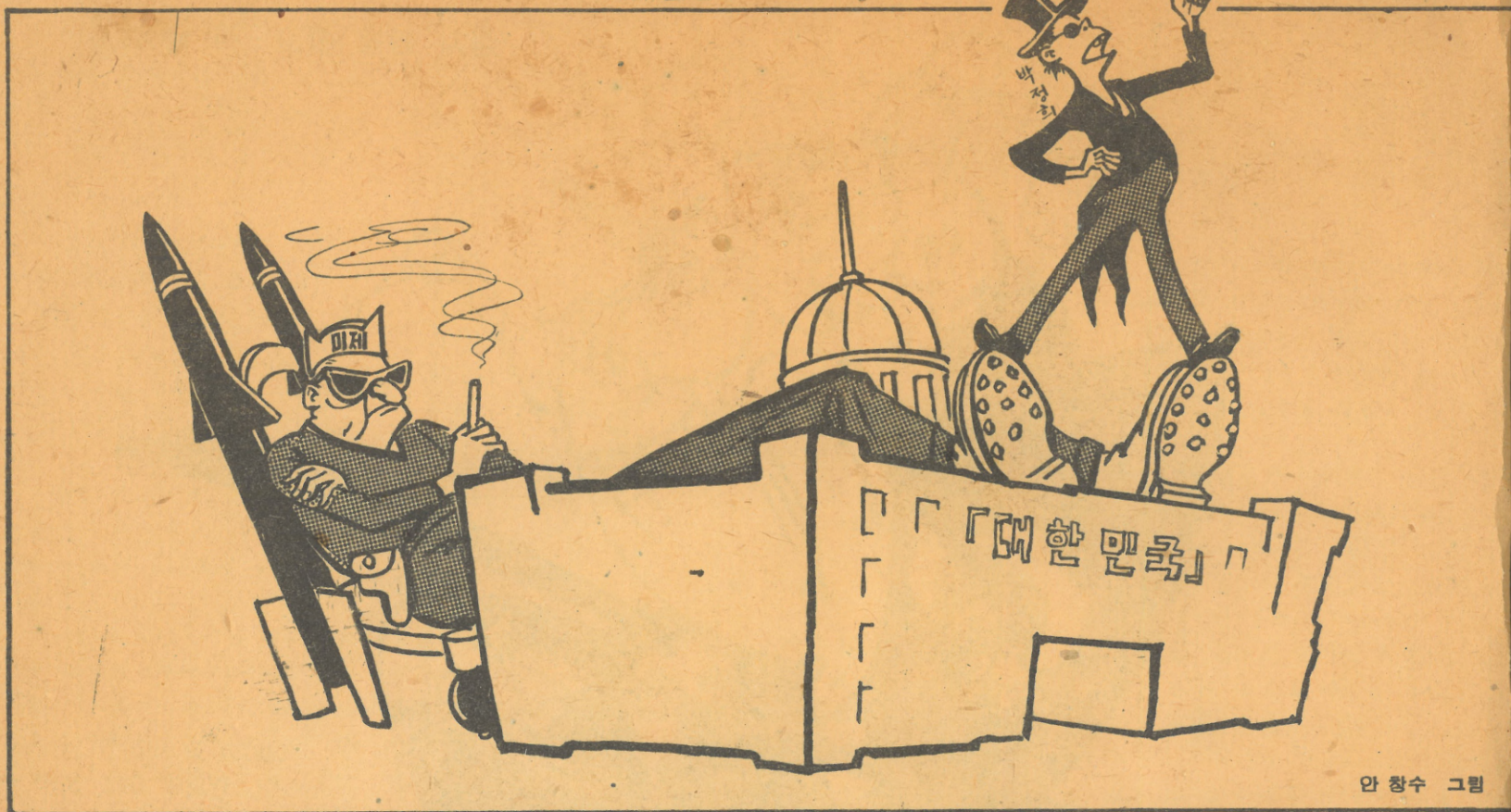
이 《가두 림시 구호소》 란 것을 개설하겠다는 날'자가 《국회 의원》 《선거》 날'자와 거의 비슷했던 걸 보아 더욱 그 《림시》 란 말이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요즘 남조선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가두 림시 구호소》는 인민들을 기만해서 위기에 처한 박 정희의 집권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소》였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첩보 통치

백 인규 그림

《대통령》 집무 개시

안 창수 그림

남조선 《국산품》

손님. 이 물건들은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점원. 모두 국산품이랍니다.

손님. 국산품이라…그럼 틀렸는데.

점원. 여보세요, 어떤 물건이 요구되시는지요?

손님. 우리 집 주인이 미국제나 일본제를 사오라구 해서 그래요.

점원. 에그,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거지 원 여기 미국제도 있고 일본제도 있어요.

손님. 어느 것 말인가요.

점원. 이 물건들이 다 그렇죠.

손님. 아니 상표는 국산품이 아니요.

점원. 자, 물건을 보시죠, 국산품인가, 상표만 한국 것으로 바꾼 것 뿐인데요.

손님. 속이시는게 아니시오?

점원. 속이다니요. 우리 한국에 이런 물건을 만들 만한 공장이 있어요?

손님. 그렇지만?!

점원. 정 그러시다면 제 상표를 도로 붙여 드립죠.

전 의남 그림

깡패와 정치

박 정희가 《깡패 일소》 를 장담한 지도 2 년 반이 되지만 오늘 남조선에는 깡패가 일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어 현재는 이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한다.

서울 시 내만도 《정치 깡패》니 《유흥 깡패》니 하는 따위들이 제법 간판을 건 본거지가 113 개나 된다고 하니 《군사 정권》 의 《깡패 일소 업적》 도 알 만 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무슨 《정당》 이라는 데서는 이런 깡패들 중에서 주먹질 잘하는 패거리들만 골라서 주먹 《애국단》 인지 매국단인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의 전위대로 곧 잘 써 먹고 있다 한다.

이 소위 《애국》 한다는 깡패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도도하게 구는지…

《뭐야 뭐, 수틀리면 정당은 물론 신문사라도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버릴 테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구악이 무색할 만큼 백주에 행패를 부리고 다니기가 일수라 한다.

정치와 깡패…

깡패와 정치…왜 이렇게 되겠는가?

결론은 명백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아닌 깡패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매국죄

—이놈! 나라를 팔아 먹다 못 해 우리 어족들까지 팔아 먹을 작정이냐!

박 승희 그림

재침《탐지기》

박 승희 그림

남조선의 《제조업》

조 명식 그림

겨울철의 남조선

신발은 해졌는데 갈수록 태산이로군!

—팔래야 팔게 없소. —살래야 돈이 없소.

있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홍 기 택

요새 남조선에서는 《있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하는 류의 말들이 류행되고 있다.

수도'가에 모여 선 아낙네들은 참새 눈물 만큼도 나오지 않는 수도를 보며 하는 말인즉

《아유 속상해라, 이런 수도는 있으나 마나…》

또 책상에 마주 앉았던 학생은 수수떡 달아맨 것처럼 벌겋게 됐다가 선거 개표장 전등처럼 깜박깜박 요술까지 부리는 전등'불을 쳐다보고 한숨 지으며 하는 말인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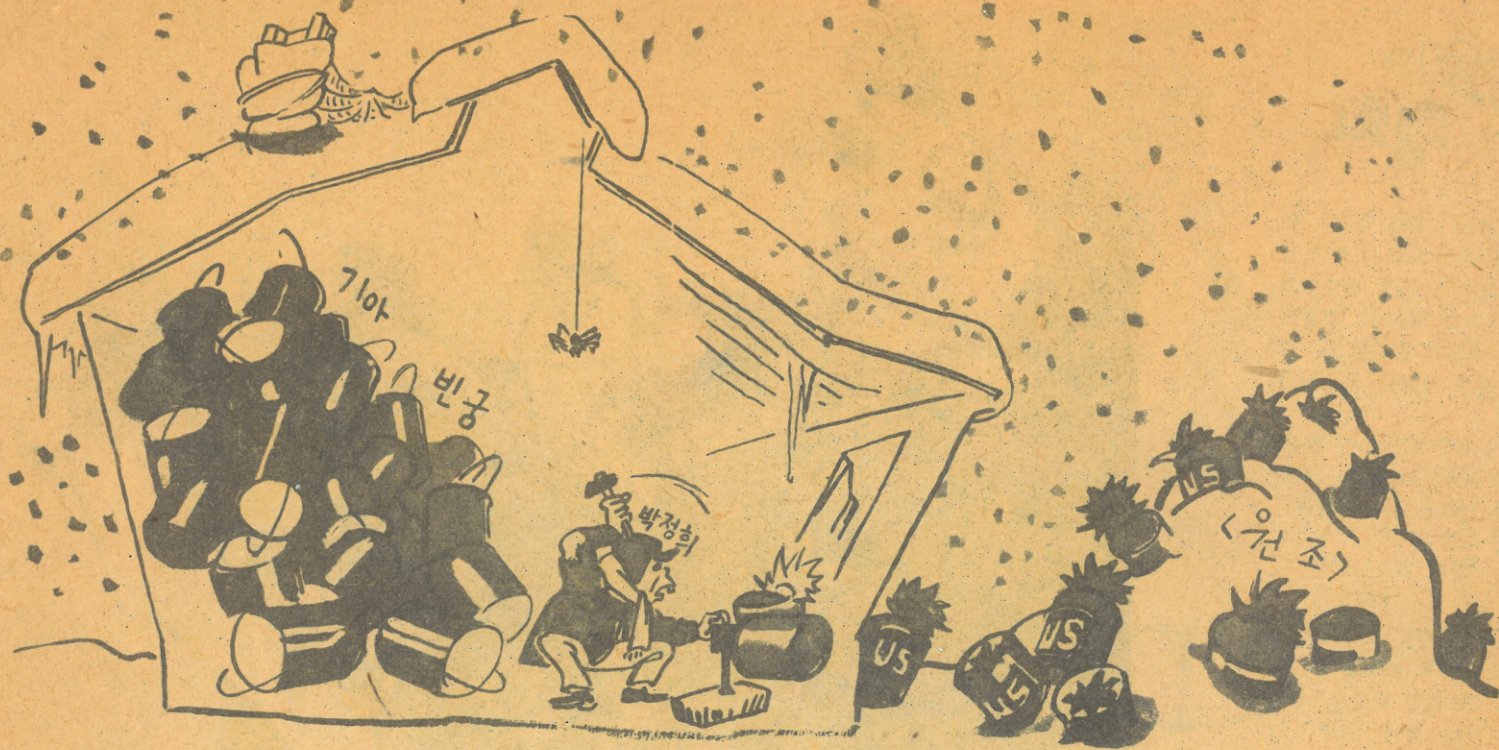
《제길, 이런 전기야 있으나 마나.》

또 하나 실례를 들어 보자.

《야, 이거 오래간만인데 그래 안녕한가?》

《뭐 그저 그렇지, 자네는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지날 것 있나, 그저 그렇지.》

이런 인사들이 교환되는 경우가 많다.

《안녕한가?》 라는 물음에 《그저 그렇지》 하고 대답하는 말 가운데는 물으나 마나 안녕할 형편이 됐느냐는 뜻이 포함된 것이고,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물음에 《그저 그렇게 지내지》 하는 대답 가운데는 물으나 마나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는 반문이 포함된 것이다.

사람이 생활 상 극히 초보적이고 필수적인 3대 요소라고 하는 의식주 문제만 놓고 봐도 이 추운 겨울에 겨우살이 옷 가지 하나 변변히 마련됐는가, 먹을 것이 약간이나마 저축됐는가, 그렇다고 뜨뜻이 지낼 수 있는 집이 마련되여 있는가?

철을 만났다고 김장 값, 구공탄 값, 집세가 오르고 게다가 문 창호지나 장판지 값 마저도 까마득 올라만 가니 이야말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그런 데다가 겨울철이 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한결 더 어려워지고 또 설사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가지고는 김장 같은 건 감불 생심 엄두도 낼 수 없으니 이 겨울을 어떻게 넘기겠는가!

그러니까 안녕하나 마나, 어떻게 지내나 마나, 겨우살이 걱정 하나 마나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고달프기만 한즉 결국 인사도 하나 마나, 문안도 올리나 마나, 살아 있으나 마나 기막힌 처지로 되고 만 것이다.

백성들의 생활은 이렇게 한심한 지경인데 감투 쓴 놈들은 연설이요, 《성명》이요, 《공약》이요 하면서 말끝마다 《복지 사회》요 《민생 구제》요 《국민 소득 향상》이요, 《가난을 없애겠노라》고 념불 외우듯 18년 동안 고아대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못 살게만 됐으니 결국 이런 감투쟁이들의 연설 들으나 마나, 《성명》 하나 마나, 《공약》 하나 마나한 텅 빈 말공부인 것이다.

원 광수 그림

어…떨린다

홍 종호 그림

화실 12호 (173)
발행소: 선 동 원 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7-01107
발행 1963년 11월 30일
값 50전

력사의 타수
맑스레닌
주의
최 영근 그